

조선통신사의 부활!

“레지던시
원류를 찾아서”

발행 | 부산문화재단
발행인 | 이문섭
발행일 | 2014년 12월 30일

진행/사진
코디네이터 | 부산문화재단 국제문화교류팀

발행처 | 부산문화재단
608-801 부산광역시 남구 우암로 84-1(감만동)
T. +82-51-744-7707 F. +81-51-744-7708
www.bscf.or.kr

디자인제작 | 산업디자인전문회사 두손컴 (출판등록 제329-1997-13호)
T. +82-51-805-8002 E-mail. doosoncomm@daum.net

발행부수 | 200부
가 격 | 비매품
I S B N | 979-11-86005-11-8

© (재)부산문화재단
저작권법상 허용된 것 이외에 본 내용물의 무단 전재와 무단 복제를 금합니다.



新 조선통신사 사업

2014 조선통신사의 부활! “레지던시 원류를 찾아서”

400년 전 조선판 레지던시 조선통신사,
문화교류를 담당하던 조선통신사 2014년 부산에서 파견되다.

문화교류를 담당했던 조선통신사의 역사적 의미를 되살려 조선통신사가 방문
했던 연고지역에 부산지역 예술가를 파견하고, 해당 지역에 대한 연구를 통해
조선통신사와 관련된 테마를 정하고 특색있는 창작 활동을 펼침으로써
양국간 문화교류 활동을 지원하는 사업



14명

(조선통신사 레지던시를 통해 파견된 예술가 수)



3곳

(조선통신사 레지던시를 통해 파견된 지역 수)



58일

(3팀의 예술가들이 일본에 체류한 기간)

CONTENTS

01 쓰시마 지역.....	05
서정우	
김보경	
변재규	
손몽주	
이가영	
이창진	
02 큐슈 지역.....	37
서상호	
오여준	
박항원	
권기남	
김효영	
박경애	
03 교토·오사카 지역	63
조수인	
김보경	

01 쓰시마 지역

서정우
김보경
변재규
손몽주
이가영
이창진



2014 조선통신사의 부활! 레지던시 원류를 찾아서 성과보고서

2014 아트 통신사, 아트 라인 - 통신사의 길

2014. 08. 20(wed) ~ 2014. 11. 03(mon)

- ▷ 장소 : 쓰시마 이즈하라 / 일본
- ▷ 책임코디네이터 : 서정우
- ▷ 통역 : 변재규, 정만영
- ▷ 후원 : 한국문화예술위원회, 부산문화재단
- ▷ 참여 작가 : 김보경, 변재규, 이창진, 손몽주, 서정우, 이가영, 정만영, 송성진, 왕덕경
- ▷ 행사 및 활동 내용
 1. 조선통신사 문화탐사 및 쓰시마 잡지도-통신사 문화지도 제작
 2. 아트 라인 교류전 - 2014 아트판타지아 작품 제작 및 전시참여
 3. 쓰시마 아티스트 워크샵 - 벽돌 자화상 그리기
 4. 언론 및 매체 홍보



Introduction

쓰시마는 조선통신사가 일본으로 향하는 첫 관문이자 문화 교류의 십자로로서 역사적 지세를 가지는 국제적 무대라 할 수 있습니다. 조선 통신사의 성신교린誠信交隣(서로 속이지 말고, 싸우지 말고, 진심을 갖고 교류하자)의 의미를 살려, 새로운 동아시아의 아트 교류 모델의 확립과 실현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쓰시마는 동쪽으로 일본 열도, 북쪽으로 한반도, 그리고 서쪽으로 중국 대륙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 지세는 경계를 넘는 아이덴티티를 길렀습니다. 가치관이 다른 사람들이 모든 고유성을 넘어서 조선사람, 일본사람, 또한 아시아의 사람들이 만나던 장소인 쓰시마에서 펼쳐지는 아트 이벤트와 통신사 연구는 현시대적인 동아시아의 마진널 맨(マージナル・マン, marginal man, 경계인)으로서의 의미와 새롭게 다양한 문화교류를 촉진시키려 합니다. 예술이라는 것은 개인의 자발적 창작 행위임과 동시에 '국가'를 초월하고 세계와 활발하게 교류하는 '개인 해양성'의 특징이 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본 프로젝트는 조선통신사의 역사가 고스란히 남아 있는 섬, 조선통신사들이 처음으로 거쳐갔다는 섬, 쓰시마 이즈하라에서 진행되었습니다. 그리고 쓰시마의 문화와 한일 양국간의 역사, 그리고 지리적 특징, 쓰시마에 남아있는 통신사의 유산, 유적 그리고 자연을 현지 학자(나가토메 후미히코) 및 전문가(요치지 요시히토)와 둘러보고 오랫동안 계승되어온 통신사 문화교류를 현대미술 사이에 두어 새롭게 부활시켜보려고 하는 것입니다.

추진방향:

쓰시마시는 일본 영토지만 일본 본토에서는 100킬로미터, 한국 부산에서는 육안으로 보일 정도의 거리인 49킬로미터 정도밖에 떨어져 있지 않습니다. 이러한 특징상 쓰시마에는 일본인 관광객보다는 한국인 관광객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한국인 관광객들은 조선통신사의 흔적과 행사뿐만 아니라 아트 프로젝트의 일환으로 진행된 예술작품이 시내 곳곳에 있다는 사실을 알지 못합니다. 현시대의 아트 프로젝트와 조선통신사의 흔적이 하나의 선으로 연결되는 통신사 문화지도 제작과 배포는 이번 파견에서 중요한 목적과 방향이 될 것입니다.

1. 조선통신사 문화답사 및 문화지도 제작

- 조선통신사 관련 유물 및 유적지 조사
- 쓰시마 잡지도 및 통신사 문화지도 제작
- 쓰시마 지도제작 탐사 및 촬영
- 이전 아트 프로젝트 작품 분포 및 2014년도 작품 배치
- 이즈하라를 중심으로 한 다양한 볼거리 및 문화 지도 제작
- 수집된 지도 자료를 그림으로 표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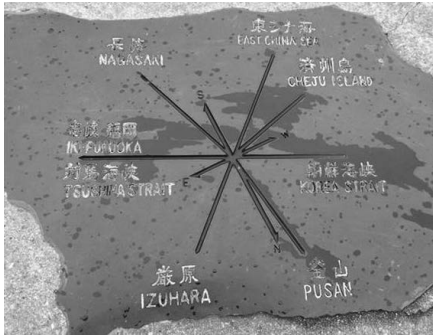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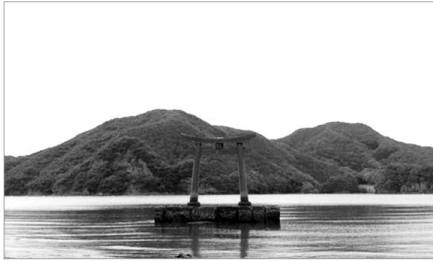


아름다운 수리센터 since 아주 오래전 오후나에유적 The remains of Ofunae 対馬藩お船江跡 166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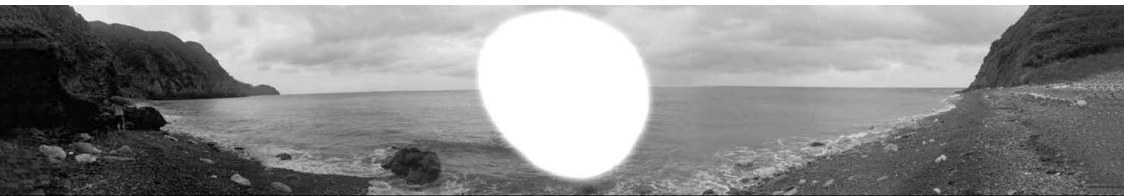


이가영 · 이즈하라의 지도

쓰시마 조선통신사 유적 투어 및 문화답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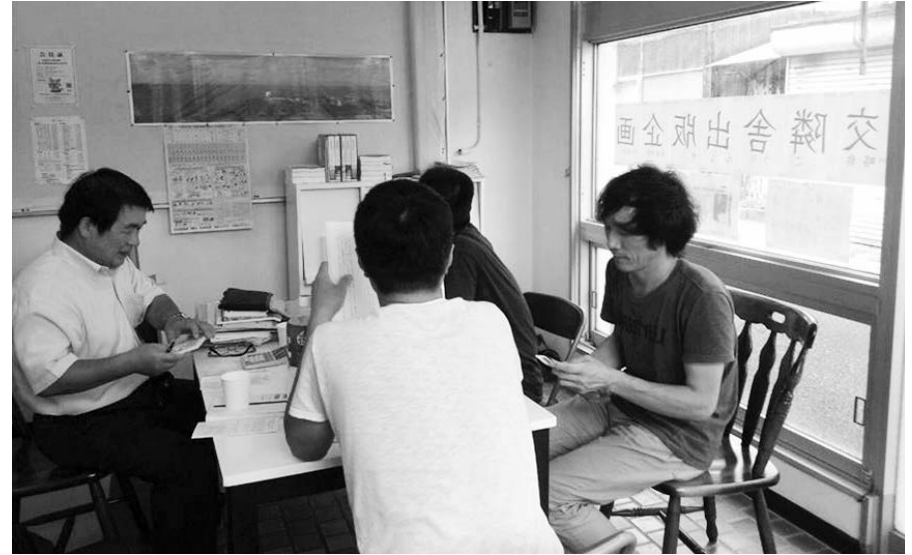
쓰시마 조선통신사 역사 및 문화유적 답사



그곳에서 다시 돌을 내려 놓았습니다

그들의 경의심이라는 것은
나의 상식을 아주 훨씬 넘어서는 것이었습니다
오래된 모든 것들을 귀하게 여기고 두려워 할 줄 아는 그들 앞에서
내 주머니 속에 넣었던 묘한 기운의 예쁜 돌을 다시 내려놓게 되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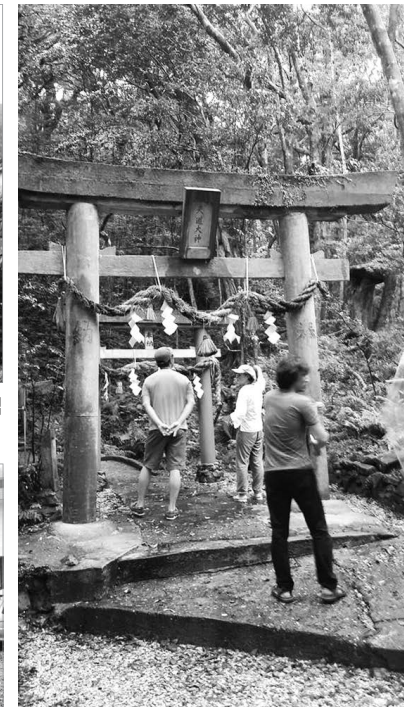
일본인, 대마도인의 자연과 마음



이즈하라 시내 나가도매상 출판사 조선통신사 역사자료 수집



이즈하라 시내 사무라이의 집



쓰시마 원시림 신사 유적 투어



이즈하라 시내 조선통신사 역사투어

이즈하라 항 방파제



이즈하라 시내

만제키바시 다리



쓰시마 역사민속 자료관



만제키바시 다리



미장공의 경연장

일본 미장 장인들의 자부심을 볼 수 있는 외벽 미장 장식 유적
이즈하라 카네이시카와베 주택 Kaneishikawabe 金石川邊

미장공의 경연장



오우라해수욕장



이즈하라 내천



2. 아트 라인 교류전

2014 아트판타지아 작품 제작 및 전시참여

부산작가 9명

이가영, 이창진, 김보경, 정만영, 변재규, 손몽주, 왕덕경, 서정우, 송성진

일본작가 17명

이토 토시미즈, 소노다 타카시, 카토 쓰바사, 마루하시 미츠오, 쿠로다 다이ске,
나나카라게 아야노, 카스야유, 나카무라 이츠키, 엔도 유토, 아이 츠츠이, 하루코 나카시마
이리에 사야, 다이ске 오미, 시카다 요시히코, 야마모토 타다스, 나카시마 하루코, 나즈미 나카시마

2012-2013 쓰시마 아트 판타지아



일본에서는 쓰시마라고 부르고 있고, 우리는 대마도라는 명칭으로 부르며, 부산 사람들에게는 날씨가 아주 청명한 날 육안으로도 보이는 친근한 섬으로 느껴온 이곳에서는 ...

2011년부터 일본 중부의 나오히마아트 프로젝트와 같은 섬 예술 프로젝트가 시작 되었는데, 그것이 쓰시마 아트 판타지아입니다.

쓰시마 아트 판타지아는 처음에 히로시마 대학 이토 교수와 쓰시마시, 동경화랑의 야마모토씨 등이 주최가 되어 국경의 섬, 경계인들의 섬에, 예술로서 섬을 가꾸어 가는 것을 목적으로 시작되었습니다.

2011년, 히로시마 대학의 학생들과 졸업생들, 일본의 작가, 일본내의 한국 유학생, 그리고 미국 작가가 참여하며 첫 행사를 시작하였으며, 2012년에는 부산문화재단에서 한국의 부산 작가들 3명을 아트 판타지아에 참여시키면서, 조선통신사의 정신을 이어내는 본격적인 교류의 장이 마련 되었습니다.

2013년에는 부산문화재단에서 '조선통신사 부활, 레지던시 원류를 찾아서'라는 사업으로 파견한 김보경, 이가영 작가를 포함, 2012년 참여 작가인 송성진, 정만영, 왕덕경 작가 3명을 일본 측에서 초대해 주어 총 5명이 쓰시마 아트 판타지아 행사에 참여 하였습니다. 이 때 많은 예술가와 쓰시마 시민, 쓰시마시 관계자들과 만나 교류하는 좋은 계기가 되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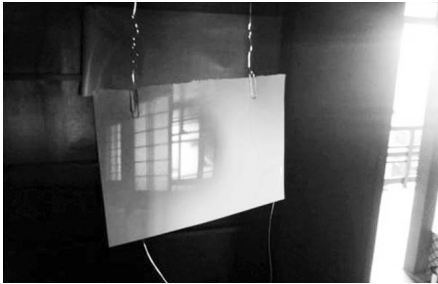
2014년은 2013년도까지의 3년간의 아트프로젝트였던 쓰시마 아트 판타지아를 이어서 히로시마 대학 조각과 이토 교수 외, 졸업생, 학생들이 주축이 되어, 쓰시마시, 시민, 한국의 작가들을 하나의 라인으로 이어 내는 '2014 쓰시마 아트 판타지아-아트 라인'을 새롭게 열게 되었습니다. 쓰시마 시민들과 시청의 담당 직원들, 히로시마 이즈미 미술관 이사장, 이토교수, 쓰시마시 역사자료관, 쓰시마 케이블 TV, 등 다양한 분야의 사람들이 모여 실행위원회를 만들어 앞으로 쓰시마 아트 판타지아를 더욱 발전시키고, 쓰시마시를 더욱 아름다운 섬으로 만들기 위해 힘을 모으게 되었습니다.

이에 부산문화재단의 조선통신사 부활 사업으로 6명의 작가가 쓰시마 프로젝트로 참여하게 되었으며, 또 다시 3명의 작가를 일본측에서 초대해 주어 올해는 총 9명의 작가가 쓰시마 아트 판타지아에 참여 하였습니다.



쓰시마 프로젝트에서 작가들은 전시 참여 뿐만 아니라 쓰시마를 더욱 이해하기 위한 조선통신사 유적 투어와 쓰시마 자연과 문화 투어 프로그램을 기획하였고, 쓰시마 아트 지도 제작, 쓰시마 사람들의 얼굴조사 등을 진행하였습니다.

전시공간, 레지던스공간, 그리고 쓰시마 현장에서 각각 작업이 진행되었다.



아트라인 교류전

ART FANTAZIA 2014
2014. 9. 27 ~ 11. 3
opening 9. 27 6:00pm



ART FANTAZIA 2014



참여작가 작품 | 9명



빈 집 _아오야기테에서 발견된 것들, 규사_가변설치_2014

왕덕경



이즈하라의 지도_종이에 연필과 먹_108x69cm_2014

이가영

바다 위에 둥둥 떠서 고요히 존재하는 그 곳에서 우리는 더운 여름을 함께 보냈다.
새 소리와 바람 소리 안에서 만났다 헤어지며 그 유령 같은 섬에 예술작품이라는 물건을 남기고 떠난다.
각자의 시간을 공간 속에 남기는 그들을 기억한다.
이것은 그 기억의 지도이다.



Water always finds its own level_길이8m_투명용기에 수성물감_2014

이창진



DUNE_Black stone_Variable installation_2014

김보경



표류기 2014_ 밴드, 표류목_8x8x4 m 이내 설치_ 2014

손몽주

표류의 노선을 생각해 볼 수 있는 작품을 제작한다. 특히 2014년도에는 개인적으로 직면한 표류된 시간이 고 통스러웠다. 많은 사람과 사물이 표류되어 지금도 떠다니고 있다는 것을 실감하며 나의 이번 작업에 이름 없는 방향의 표류로 인한 떠밀려감을 담아본다.



순환하는 소리_수도꼭지, PVC 파이프, 앰프, 혼스피커 드라이버 외 혼합재료_가변 설치_ 2014

정만영

국경의 섬 대마도, 조용한 섬 대마도에서 들리는 파도소리와 작은 폭포소리 등의 물소리는, 복잡한 해안선으로 이루어져 물을 품고 있는 듯한 대마도의 모습에서 더욱더 물의 의미가 확대된다. 한국의 절에서 녹음한 물소리와 일본의 어느 신사에서 녹음한 물소리를 혼합시켜 대마도 지정학적 의미를 되살리고 작은 기원을 시작하는 의미가 있다. 장소는 대마도 시청 뒤, 아오야기테 주택의 야외 수도가 있는 장소인데, 재미난 것은 아주 오래된 우물과 우물터, 그리고 현대적인 수도가 같이 있다는 것이다. 대마도 이즈하라 시내가 내려다 보이는 높은 장소임에도 불구하고 우물터가 있는 것도 특이하지만 오래된 우물과 수도가 같이 있어 물의 역사, 또는 물의 순환을 느낄 수 있는 장소라 생각되어 한국의 물소리와 일본의 물소리가 만나는 장소로 정하였다.

송성진



풍경의 조건_lense, mirror, rice paper_가변설치_2014



Temperature of night in Tsusima_digitalpring_2014

변재규

렌즈에 투사된 이 다섯가지 이미지들은 간단한 물리적 법칙에 의해 구축된다.
그것은 태양의 궤적, 빛의 세기, 렌즈와 스크린 페이퍼 사이의 거리이다.
여기의 풍경들은 적절한 밸런스를 가지고 우리들 앞에 나타난다.



쓰시마 어린이를 위한 미술 교육 워크숍

3. 벽돌 자화상 그리기



재회_ 회벽돌에 연필소묘_ 잊혀진 공간에 설치_ 2014

서정우



2014. 9. 13. 13:00 ~ 15:00pm

장 소: 쓰시마 이즈하라 티아라몰 5F 세미나실

진 행: 한국측 작가 3명

진행 및 통역 - 서정우, 변재규, 이가영

일본측 작가 1명(나나카라게 이야노)

참여자: 쓰시마 어린이와 현지주민 12명(만4세~성인, 보호자 2명 포함)

전 시: 쓰시마 이즈하라 18은행 원도우 전시장

홍 보: 대마케이블 3분 방영 및 지역 언론



워크숍 목적 및 내용

1. 쓰시마 현지주민의 얼굴자료를 수집하는데 기초 할 수 있다
2. 참여자로서는 자신의 얼굴에 대해 다시 한번 관찰하고 서로 비교할 수 있는 시간이며, 미술재료로서 익숙하지 않은 벽돌에 표현해 보면서 특유의 재질감과 표현에 대한 새로운 경험을 얻을 수 있다.
3. 일본측 작가와 한국측 작가, 워크숍 참여자, 신문과 방송 등의 언론매체, 완성작 전시회 등을 통해 작가 및 워크숍 참여자는 물론 관객 등 현지주민들 모두, 보다 긴밀히 연결되고 소통과 공유할 수 있다.



Work shop 후기 _ 1

서정우

본 워크숍에 앞서 일본식 교육환경이나 조건 등에 대한 사전 이해도가 부족하여 진행에 대한 어려움이 예상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함께 해준 한국 및 일본 측 진행자 및 관계자 등의 적극적인 협동을 통해 아주 원활한 워크숍이 이루어질 수 있었고, 무엇보다 일본인 참여자인 어린이와 성인들의 높은 열의와 집중력은 얼굴자료수집과 벽돌작품제작이라는 두 가지 목적을 얻는데 절대적인 도움이 되었다.

이후 대마케이블 및 지역언론, 지역은행 등의 관심으로, 본 워크숍의 내용과 효과를 보다 넓게 보여줄 수 있었던 것은 초기에 기대하지 않았던 뜻밖의 성과이기도 하다.

그리고 아쉬웠던 점으로, 보다 높은 참여율과 다양한 결과물을 기대할 수 있는 홍보와 워크숍 일정에 대한 사전 조율의 부족이 아쉬움으로 남는다.



Work shop 후기 _ 2

변재규

워크샵에 통역자로서 참가했지만 작가와 아이들 사이에서 통역한다는 것이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을까? 역시 문자언어화 되기 이전의 예술, 즉 그림이란 수단은 자연스레 문화와 세대를 초월하게 해주는 훌륭한 도구임을 새삼 재확인 시켜 주었다. 아이들의 때문지 않은 순수함은 작가란 이름에 묻어올 때를 부끄럽게 하기도 했으며, 아이들 앞에서 저절로 무장 해제된 마음은 워크샵의 피곤함을 지워 버렸다. 본인 뿐만 아니라 같이 참여한 스텝들의 마음도 워크샵 내내 나와 같지 않았을까? 워크샵 종료 후 그들이 가진 순수함의 열정에 압도되어 참여했던 스텝들은 모두 기진맥진한 상태가 되었지만 오랜만에 느껴보는 에너지의 소진됨은 적어도 각자들에게 다시 유익한 무언가로 환원되어 돌아왔을 것이다.



4. 언론 및 매체 홍보





2014 조선통신사의 부활!
레지던시 원류를 찾아서 성과보고서

02 큐슈 지역

서상호
오여준
박항원
권기남
김효영
박경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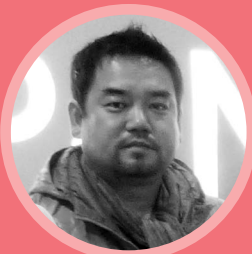
2014 조선통신사의 부활! 레지던시 원류를 찾아서 성과보고서

무빙청년통신사(후쿠오카-부산)

2014. 11. 28(Fri) ~ 2014. 12. 13(Sat)

2014 조선통신사 후쿠오카지역 참여자(총6명)

- ▷ 서상호(오픈스페이스배 디렉터)
- ▷ 박경애(작가, 전 무빙트리엔날레 코디네이터)
- ▷ 권도유(작가)
- ▷ 박항원(작가)
- ▷ 김효영(공간 힘 큐레이터)
- ▷ 오여준(공간 힘 코디네이터)



서상호



박경애



박항원



김효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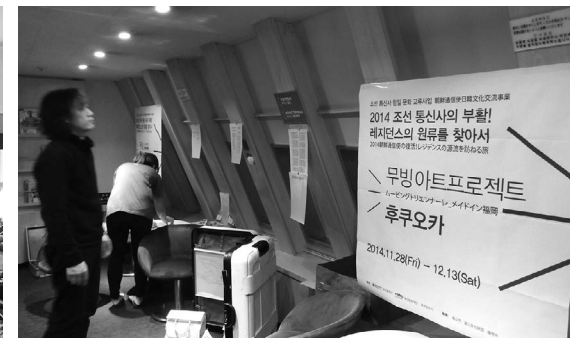
권도유



오여준

1. 조선 - 청년 통신사 취지 및 의도

조선에서 일본으로 파견된 사절을 조선통신사라고 한다. '통신(通信)'이란 '신의를 나눈다'는 의미이다. 2014 조선-청년 통신사는 후쿠오카와 부산을 연결하는 문화적 통로이자 우호적인 교류의 장으로서 양국의 문화 예술적인 소통을 함께하며 과거에 있었던 조선통신사를 다시 한번 돌아보고 미래의 조선통신사의 초석이 되기 위한 하나의 이어짐을 연결하기 위한 기획이다.



나라와 쓰는 언어는 다를 지라도 문화 예술로 인해 하나가 될 수 있는 가능성을 이어 나가고 서로의 경험을 교환하고 함께 축적함으로써 부산-후쿠오카의 나아가 한국과 일본의 유대를 발전시키고 문화교류를 확고히 다진다. 2014년의 조선 통신사 후쿠오카팀은 후쿠오카 지역의 문화교류 활성화를 위해 무빙아트프로젝트와 청년통신사 레지던시의 원류를 찾아서를 함께 진행하여 서로의 문화교류 증진과 양국의 레지던시 현황에 대해 자세히 알아본다.

2. 일정



11.28(금)

출국. 선상 무빙아트프로젝트 설치.



11.29(토)

일본 입국.

후쿠오카 아시아 미술관과 캐널시티에 무빙아트 프로젝트 작품설치. 아시아 미술관에서의 무빙아트프로젝트 세미나 진행 및 작품보호를 위한 캐널시티 작품 철수. 늦은 밤 숙소 도착.



11.30(일)

후쿠오카 트리엔날레 피날레 참석.

미술관 작품 철수 및 작품이동.

<art space tetra테트라>에서로 작품 이동 완료.



12.01(월)

<art space tetra테트라>에 작품 설치 완료.

테트라 인터뷰 진행.



12.03(수)

<곤야konya2023>방문. 인터뷰 및 공간 탐방.



12.04(목)

<레이센소reizensou>방문 인터뷰 및 공간 탐방. 후쿠오카 타워 방문.



12.06(토)

<art space tetra테트라>에서

오후3시~6까지 3시간여에 진행된 전시회 세미나.



12.07(일)

이노우에 아야코(Inoue ayako) 씨 외 2인의 작업실 방문.



12.08(월)

아이노시마 섬 방문.



12.10(수)

귀국.

3. 공간인터뷰_1



(테트라 대표 **사카구치씨**, 작가이자 테트라의 매니저격의 **타쿠마씨** 그리고 **무빙 인원**이 전부 참여했다. 각자 **사, 타, 오**로 줄여서 표시하였다.)

오_ 반갑습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타_ 반갑습니다.

오_ 질문은 약 세가지 네가지 정도입니다. 첫번째 질문은 art space tetra는 어떻게 운영되고 있나요?

타_ 테트라는 총 11명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오_ 그러면 다 같이 일을 하는 건가요? 11명에서 운영하는 건 어떤 뜻인가요?

타_ 다 같이 이 공간의 월세를 나누어서 냅니다. 마키조노 코가 야마우치까지 저를 포함한

4명은 작품을 만드는 작가이며 겐사이 씨는 철학을 배우는?

사_ 철학연구자 정도.

타_ 철학연구자를 하고 계십니다. 지금 대학에서 연구 중이세요. 그리고 사토씨라고 하는 분은 편집을 일을 하고 계십니다. 프리라이터(프리랜서)이십니다. 그리고 사카구치상은 음악을 만드는 일을 하고 계세요.

오_ 밴드로 하시는 거세요?

사_ 혼자서 하고 있습니다.

오_ 싱어 송 라이터이신 거네요?

사_ 컴퓨터가 하고 있습니다.

오_ 그러면 앨범이나 싱글 같은 것도 내는 건가요?

사_ 아닙니다. 그 정도까지는 아닙니다.

오_ 그래서 테트라에서 공연이나 라이브를 하나요?

타_ 공연을 하고 있습니다. 전시보다는 공연을 주로 하는 편입니다.

오_ 후쿠오카에 활동하는 뮤지션들인가요?

타_ 그분들과 해외 뮤지션들도 센씨는 호주에서 오셨습니다. 유럽이나 등에서도 자주 오십니다. 꽤 해외에서 음악하시는 분들도 오십니다.

오_ 라이브도 하시는 건가요?

타_ 라이브는 못 합니다 드럼같은 경우는 시끄러우니까 옆 건물에 피해가 되어서..

오_ 대표분께서 음악을 하시고 나서 미술 작품을 하신건가요?

사_ 원래 부터 다 같이 했었다.

타_ 원래 멤버라는건 테트라를 처음 만들었을 당시에 있던 멤버 입니다. 재작년 2012년에 새 멤버로 바꿨네요. 사카구치씨는 원래 있었습니다.

오_ 언제 처음 시작하셨나요?

타_ 오픈한 것은 2004년 4월.

오_ 10년이나 된 거네요! 사카구치씨는 그럼 10년이 되신 건가요? 아니면 몇 년째이신가요?

사_ 저는 여기에서 2006년부터 일을 하게 되었습니다.

타_ 원래 멤버는 엔도라는 큐레이터 분께서 지금 프리라이터 하고 계시구요, 아베 타카아스미라는 분은 작가, 디자인 하십니다. 포스트 디자인 후쿠오카시 미술관포스터 최근에 만든 적 있습니다.

오_ 그러면 원년멤버 분들은 지금은 어떻게 하고 계신가요? 어떤 조연 정도로 참여를 하시는 건가요?



타_ 네 그렇게 운영되고 있습니다.
 오_ 그러면 운영 자금은 다 같이 돈을 모아 운영 되는 건가요?
 타_ 네. 각자 돈을 내고 테트라를 각자가 하고 싶어 하는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사진이라던가 자기가 기획한 전시라던가. 그 외에도 렌탈도 같이 하고 있습니다.
 오_ 그럼 운영멤버 사이에서 어떤 기본 규칙이 있나요?
 타_ 1만엔을 내고 자기가 하고 싶은 일은 하는 것?
 오_ 그럼 한 달에 1만엔인가요?
 타_ 네. 월마다 1만엔입니다.
 오_ 그럼 새로운 사람들은 어떻게 구하시나요?
 타_ 어떤 사람이 들어오고 싶다고 메일을 보내오면 운영 멤버들끼리 다같이 어떻게하고 다 같이 회의 후에 괜찮다 싶으면 받아들입니다.
 오_ 다 같이 공부 같은 것을 하고 있는 것이 있나요?
 타_ 미학에 대해서 매우 싫어하는 멤버가 있기 때문에.(웃음) 주로 정치에 대해서 책을 읽거나 하면서 몇몇이서 공부를 하는 편입니다.
 오_ 정치면 현재의 정치에 대한 것인가요?
 타_ 네. 완벽한 반 아베입니다.
 오_ 일본만이 아니라 해외의 정치도 같이 하시는 건가요?
 타_ 네 그렇죠. 미국이나.
 오_ 가까이 있는 한국이나 중국도 그렇지요? 북한에 대해서도 얘기를 하구요?
 타_ 조금씩 하는 편입니다.

오_ 그러면 후쿠시마 원전에 대해서도 얘기를 안할 수 없을 것 같은데요. 그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타_ 매우 힘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원전이 없어지는 것이 제일 좋겠지만 얼마나 사람들이 이런 생각하고 있을지도..
 오_ 생각만 하는 것보다는 아마 어떤 것을 하는 것이.
 타_ 아무래도 이런 일이 일어났음에도 불구하고 아베는 어떤 행동을 취하는지 너무 부실하게 대처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오_ 개인적으로 생활 같은건 어떻게 변화가 있었나요?
 타_ 큐슈사람들은 멀어서 그닥 변화는 없지만 관동사람들이 이쪽으로 이사를 해오는 사람이 많습니다.
 사_ 저희 멤버 중에 3명도 12년에 도쿄에서 이사해 온 분도 있습니다.
 오_ 그리고 생선이나 야채를 살 때에 원산지를 확인해본다거나 하는 일도 있을 법 하네요.
 타_ 무조건 다들 원산지는 확인합니다. 큐슈라고 적혀져 있으면 안심하고 먹는다거나 토호쿠에서 온 것은 어디인지 슈퍼에 있는 건 좀 신경을 써서 거의 대부분 큐슈산이라서 후쿠오카에서는 커다란 변화는 없었던 것 같네요.
 오_ 후쿠오카라고 적혀있는 것은 믿을 수 있으신가요?
 타_ 아무래도 믿어야 할 수 밖에 없지 않을까 싶어요.



3. 공간인터뷰_2

(이 인터뷰는 konya2023의 TRAVEL FRONT의 미야자키 유키코씨와 함께 하였다. 인터뷰의 표기는 미,오로 하겠다.)

오_ 곤야의 전체 빌딩의 매니저 이신거지요?

미_ 그렇죠. 이 빌딩에 게스트하우스 레지던시나 전사로 쓰이는 공간 전체를 쓰고 있습니다.

오_ 그러면 운영에 관해서는 미야자키씨는 운영을 하고 있고 이외에 또 어떻게 운영 멤버가 갖춰져 있습니까?

미_ 트레블 프론트(TRAVEL FRONT)의 3명이며 대표 켄치쿠씨 이십니다. 그리고 그래픽 디자이너 그리고 저 이렇게 세 명입니다. 실제로는 제가 코디네이터나 큐레이터로써 일하고 있습니다. 제가 직접 기획하는 것은 일년에 몇 번 안되기 때문에 혼자서 하고



있습니다.

오_ 이번 해에 기획하셨던 전시는 있었나요?

미_ 이번 해에는 저 말고 이곳에서 기획한 전시만 했었습니다. 큐슈대의 어느분께서 큐레이팅 해주시고 공동으로 같이 전시를 열었습니다. 직접적으로 한 것은 없지만 다른 분과 같이 한 것은 있네요.

오_ 그분은 곤야의 멤버는 아니지만 교류를 위해서나 같이

미_ 네 공동으로 함께 전시를 이루었지요. 그리고 섬머스쿨이라고 해서 이번 해에는 하지 않았지만 여태까지 몇번 해왔었고 그리해서 다른 분들이 직접 선생님이 되어 하기도 하고 다른 지역의 아티스트들도 모여서 같이 하기도 하네요.

오_ 섬머스쿨을 기획하거나 결정하는 것은

미_ 3명에서 다같이 하고 매주 미팅을 하고 있습니다.

오_ 매주 1번 하시는 거네요? 레지던스도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어떤 조건이 있나요?

미_ 게스트하우스와 비슷하네요. 아티스트가 아니어도 누군가로부터 소개가 있거나 여행으로 오시는 분들에게도 내어주는 경우가 있습니다. 패션이라던가 전시 하는 분들에게 내어주는 편이네요. 그 외에는 딱히 여기에 묶는 금액이외에는 없습니다. 이곳에 독일분이 있으신데 한 달 간 전시회를 열기도 했었지요.

오_ 게스트 하우스는 위쪽으로 저 뒤쪽(인터뷰 하는 장소가 이들의 미팅 장소였으며, 바로 뒤쪽은 전시회장 이었다)이 전시회장이지요?

미_ 저곳은 렌탈을 합니다.

오_ 그러면 게스트하우스의 금액으로 운영자금을 모으는 거네요



미_ 그렇지요. 세 명이 있지만 다른 분들도 트래블 프론트 이외에도 다른 일을 갖고 계십니다.

오_ 새로운 작가를 발굴하는 프로그램 같은 게 있나요?

미_ 아, 그건 매년 하는 것은 없지만 이번 해 1월에서 후쿠오카의 신진 작가들을 19명 발굴했지요. 이 책이 미야모토 하츠네씨와 프리라이터 하는 세 명에서 같이 만들었습니다. 출판으로 저희끼리 했습니다. 큐슈와 오키나와의 작가를 소개하는 책이었습니다.

오_ 이 책의 안에 이번 해 1월에 한 전시의 작가도 있나요?

미_ 작가를 골라서 큐슈나 여러 갤러리에서 만나서 19명과 함께 만들기도 했습니다.

오_ 아무래도 예술이다 보니 후쿠시마에 관련해서 개인적으로 생활이 바뀌지 않았나 하는 걸 물어보고 싶은데요.

미_ 변했다는 건 없지만 아무래도 이사 오시는 분들이 많지요. 대부분 원전에 대한 이야기는 위험한 일이기도 해서 좀 얘기하는 게 어렵기도 하지요. 제 주변에는 생각하고 있다고 말하는 분들은 잘 없어요.



3. 공간인터뷰_3

(이 인터뷰는 스기야마 코우이치로씨와 이루어졌다. 이하 코,오로 적겠다)

오_ 레이센소는 건물 전체인가요?

코_ 레이센소는 건물 전체이며 원래 아파트의 이름은 야기야파트였습니다. 따로 건물주가 있으십니다. 지금 여기가 관리실이고 오너 회사입니다. 레이센소의 운영이나 관리회사가 따로 있습니다.

오_ 따로 관리 회사가 있는 건가요?

코_ 운영하는 회사가 따로 있습니다. 오너분의 회사가 있으시고 그 회사와 함께 레이센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더해서 처음 건물이 57년에 세워졌습니다.

오_ 아파트가 세워졌을 때부터 아트로 쓰여 졌나요?

코_ 처음에는 단지 아파트로 쓰여 졌지만 원래 계셨던 분들은 이사를 가고 비워졌고 그것을 레이센소로 다시 쓰여 지고 있습니다. 집으로는 좀 힘들 것 같아서 건물을 전부 사무소 같은 걸로 쓰이고 있습니다.





오_ 그럼 작품 활동으로도 쓰이나요?

코_ 아무래도

오_ 옆에는 카페도 있고 5층에 올라가면서 뭔가 아티스트 오피스 같은거로 많이 보이더라구요.

코_ 2002년까지는 수업을 했었고 그 뒤에는 작품 활동을 하기도 했고 사진 스튜디오로도 사용되고 있으며, 개조(renovation)을 했기 때문에 renovation museum reizenso 라고 합니다.

오_ 2002년부터 계속 있는 건가요?

코_ 저는 2010년부터 여기 들어왔습니다.

오_ 운영기관은 정해져있나요?

코_ 처음은 3년간 하고 두명째에는 정해져있지 않았지만 지금에서는 5년 정도 정해져 있습니다.

오_ 운영멤버는 따로 정해져 있는 건가요?

코_ 운영멤버보다는 지금 관리하는 회사가 있기 때문에 15명 정도가 같이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곳 세입자들이 각자의 집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오_ 운영이나 관리하는 돈은 집값으로 다 같이 하는 건가요?

코_ 각자의 집값을 건물의 관리비로 같이 나가는 거지요. 계약기간은 09년까지는 3년이었지만 그 다음에는 5년 정도 였네요.

오_ 그러면 아티스트들만 들어올 수 있는 건가요?

코_ 그건 아니고 아티스트들이 있기도 하지만 일반적인 분들도 많이 들어오십니다. 그리고 원래 6~9년사이에는 한달에 3만5천엔의 월세를 냈다. 그때는 직접 개조를 해야 했기 때문에, 지금은 월세가 6만엔이다. 그리고 여기 들어오는 조건은 딱히 없지만 월세를 낼 수 있는지 확인 할 수 있는것? 직업이 있든 없든 자신이 돈을 낼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줄 수 있는 것입니다.

오_ 저희가 인터뷰하고 있는 방은 어떤 용도로 이용되고 있나요?

코_ 이곳은 안내라던가 디렉팅 하기도 하며 미팅도 하며 개인 사무실이기도 합니다. 지금 여기에 살고 있는 가구 수는 23가구 이며 요가도 있고 한국어교실도 있고 식당도 있고 카페도 있고 일반 사무실도 있습니다.

오_ 그럼 사람들과 다 같이 하는 연례행사라던가 기획된 전시 같은 것이 있나요?

코_ 매년 페스티발을 여는데 꼭 레이센소에 살고 있는 사람들만이 참여하는 것은 아니고 누구든 참여는 가능합니다. 그리고 한번 씩 레이센소 사람들끼리 함께 피크닉을 가기도 합니다.

오_ 사람들이 많이 살면 주차 같은 건 어떻게 하나요?

코_ 주차장은 각자 코인주차장이나 따로 해야 합니다. 건물 앞에는 세워놓을 수 없기 때문에.

오_ 그럼 작가나 아티스트 분들은 아무래도 좀 경제적인 부분이 힘들지 않습니까? 그런데 레이센소의 월세는 좀 비싼편인 것 같은데 그런데도 들어오시는 분들은 들어오는 이유가 뭘까요

코_ 아 좀 어려운 질문이긴 하네요. 그래도 아틀리에가 있거나 교실이 있기도 하고 교실이 없는 시간에 작품 활동을 하기도 합니다.



4. 조선 청년통신사 에세이

<2014 조선통신사의 부활! 레지던시의 원류를 찾아서 -무빙 청년통신사 리서치를 다녀와서>

조선에는 통신사라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글_코디네이터 서상호

“옛날 옛날에 조선 통신사라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아주 큰 배를 타고 관문 해협을 건너 일본으로 갔다 온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많게는 400여명이 한 배에서 숙식을 같이 하며 때로는 풍랑을 만나 바다에 빠지기도 했다고 합니다. 그들 중에는 그림 그리는 사람, 글 쓰는 사람, 그릇 만드는 사람 등 많은 예술가들이 함께 왔지요. 어떤 이는 자의든 타의든 일본에 가서 돌아오지 않은 사람도 있었습니다.” 그 이후 한국 사람이 우리 동네 방문하기는 참 드물었는데...2013년 요코하마 bankart 1929신 조선통신사 프로젝트 일환으로 방문했던 히로시마 현에 있는 시모카와마리 박물관에 계시던 분의 말씀이 문득 생각난다.

2014년 11월 28일, 배는 그날 대한해협을 지나 큐슈 해협의 앞 바다를 향해 중이었다. 부산에서 수십 명이 승선하였고 후쿠오카에서 20여명의 선원들이 큰 배를 맞이하였다. 선장 가운데 미야모토 하즈메, 이가라시 리나, 심우현은 후쿠오카 예술 선원들을 모조리 동원시켜 배를 정박 시킨다. 기타큐슈, 요코하마에서도 무한 에너지가 공수되기도 하였다. 다행히 배의 연료는 각지로 부터 마련되었고 부산의 문화 파스꾼이 사전에 배에 실어 준 것도 충분 하였다. 배의 목적지는 고정되지 않았어도 다만 연료가 떨어질까 제일 두려웠던 것이고 그 때문에 출발이 지연되기도 하였다. 뜻이 그러하니, 모든 게 순조로운 항해를 하게 되었고 그날 밤 비바람이 몹시 불어도 아무 일 없는 듯 배는 새벽 항구에 딱 하니 정박한다.

지난 밤 그들은 옛 선조들이 한껏 저름 흥내를 내어 본다. 큰 배 안에서(승선인원 400명) 전시회도 열었다. 선내 화성기에서는 젊은 통신사들이 전을 펼쳤으니 함께 하시라고, 영문도 모른 채 배를 탄 사람들은 매우 흥분된 모습으로 구경을 하고 마치 본인도 통신사가 된 것처럼 연방 사진으로 기록하기도 한다. 도착항에서도 전시와 포퍼먼스(행렬)를 열기도 했다. 그리고 후쿠오카의 대표적 마쓰리가 열리는 큰 백화점(캐널시티)앞 마당에서도 전을 펼치기도 하고 후쿠오카 트리엔날레의 막바지 지점에 합류하여 토크쇼와 전시도 하였다. 짧은 2주 동안 많은 일들이 있었다. 옛 선조들에 비하면 초고속이다. 하나씩 펼쳐 보이기보다 소

위 효율적인 방식을 채택 한 것이다. 이미 신세대 조선 통신사라 불러야 할듯 하다.

그래도 가능할 수 있었던 것은 한국보다 일본이라는 특히 후쿠오카라는 도시의 특성상 조선통신사에 대한 시민 사회의 이해도와 관심들이 탁월 했다는 것이다. 이미 그들은 통신사라는 이름에 매우 익숙해 있고 그들(과거 선조들)의 생활에 낯선 이름이 아닌 것이다. 다양 하도 우리는 청년통신사라는 이름으로 후쿠오카 지역을 맘 놓고 다닐 수 있었고 거대한 행렬은 아니더라도 가는 곳 마다 환대를 받을 수 있었다. 특히 후쿠오카 트리엔날레 오픈 날 시장의 초청 안내 멘트는 “조선 통신사” 라는 이름이 매우 강하게 각인되어 왔다. 청년 통신사라는 이름을 붙인 게 다행이다 싶었다. 특별한 기운마저 감돌았다.

그 청년 통신사들은 출발할 때부터 부산한 움직임들이 심상치 않았다. 수십 명의 응원군(지역 작가들)이 가방을 하나씩 들고 부둣가로 왔고 멀리서 보낸 가방(작품)들은 트럭에 실어 뱃머리로 운반되어 왔다. 또한 청년통신사 6명 말고도 동행하는 인원이 제법 많았다. 중앙동 토박이 작가들, 또따따가에서 운영하는 왔다 갔다 프로젝트 팀, 무빙트리엔날레 팀, 이렇게 우리는 20여명이 한 배를 탄 것이다. 그날 밤 배는 어느 때와 마찬가지로 부산항을 출발 하였고 쓰시마 해협을 지나 관문해협으로 통과 했다. 그리고는 아침부터 마중 나온 일본 관계자들과 일정에 맞추어 하나하나씩 진행 되었다. 다년간 숙련된 판의 선수들이 합친 것이다. 부산과 후쿠오카에서 수십 년씩 이 판에 놀던 사람들이라 한 치의 오류나 이견 없이 그렇게 많은 스케줄을 소화해 냈던 것이다.

이제 청년 통신사들은 새로운 기운으로 그들의 기호에 맞는 옷과 색깔로 판을 만들어 갈 것이다. 환경이 급변하지만 동시대 예술 언어의 미시적 관점을 놓쳐서는 안 되며 또한 선배들의 귀적들을 잘 이해 하고자 할 때 수월하게 그 색과 옷을 잘 마련 할 수 있을 것이다. 이미 숙련된 선배들은 새로운 기회를 만들어 주었고 그들 스스로 새로운 길을 개척해 나가길 박수와 격려가 필요하며. 그래도 혹여 연료가 떨어질 때 쯤 그 연료 공수 방법이나 챙겨 보는 게 도리인 듯싶다.

짧은 항해는 끝났고 다시 각자의 처소로 돌아왔다. 그래도 청년 통신사들은 아직 그 여운이 감돌고 있으며 새로이 꿈꿀 여지가 충분하다. 그렇다면 다음 항해를 위한 구상을 해야 할터인데 어떤 배로, 무엇을 실어 다시 출항할 기회를 고민해봐야 할 것이다. 기대된다. 그들이 어떤 색깔의 옷을 입고 떠날지를! 다시 출항하는 날 손을 흔들며 환송하는 자리에 선 배들도 기꺼이 뱃머리에 나갈 것이다. 일일이 손을 잡아주고 따뜻한 포옹을 해줄 것이다. 곧 그날이 오기를 ...

島の食堂

글_ 박경애

화려함만큼이나 왠지 처연한 부산 남항대교의 야경을 뒤로 하고 우리는 11월29일 아침, 일본 하카타항博多港에 도착했다. 그곳의 무채색 안개는 모직 외투를 뚫고 들어와 나를 감열했다. 표면적으로는 서로 긴밀한 교류를 지향하면서도 한시도 견제를 늦추지 않는 한일양국의 단면을 내리자마자 체현한 것이다. 즉시 나의 세포들은 경계태세를 갖췄다.

후쿠오카 아시아 미술관 로비에서 우리의 첫 아트무빙이 펼쳐졌다. '후쿠오카 트리엔날레'의 폐막식을 이틀 남겨둔 미술관은 일본 작가의 작품과 우리의 가방프로젝트를 콜라보레이션 하기위해 조금은 들떠 있었다. 대다수의 작품들은 미술관에 설치됐고, 몇 개의 가방작품들은 대형 쇼핑몰인 캐럴시티 광장에 전시되어

'moving'의 명칭을 정당화시켰다. 많은 관광객들이 강물처럼 흘러갔던 캐럴시티엔 거의 반 정도가 한국인들이었다. 그네들의 손에 한 두 개씩 들려졌던 선물꾸러미들이 우리의 가방 작품에 담기길 원하는 눈빛이었다. 사소한 선물의 흔함을 넘어 스스로 작품이 되기를, 그래서 누군가에게 의미 깊게 전해지기를 소원해서였을 거다.

아시아미술관에서 이틀간 전시되었던 작품들은, 다음날 하카타 구, 스사키 마치Hakata-gu, Susaki-machi에 있는 <art space tetra>에서 일주일간 관람객을 맞았다. 그곳의 거리는 내내 젓빛이었고, 갤러리 또한 회색빛 상자였다. '무빙'이 살짝 고독하고 쓸쓸했다.

그사이 우리는 다이묘Daimyo에 있는 <konya2023>을 리서치의 일환으로 찾았다. 그곳은 2008년부터 총 15년간의 아트프로젝트를 기획·실천하고 있었다. 구체적 실천방향과 결과물은 명확히 볼 수 없었지만, 그것을 설명해주는 유키코 미야자키Yukiko Miyazaki 큐레이터의 눈빛에서 그 진정성과 성실함을 짐작할 수 있었다. 그리고 두 번째 리서치 공간인 <레이

센소reizensou>는 지은 지 50여년이나 된 아파트가 재생 프로젝트에 의해 새롭게 용도가 변경된 공간으로, 문화예술과 그것을 아우르는 모든 장르의 관계자들이 일정액의 임대료를 내고 작업장 혹은 사무실로 이용하는 곳이었다. 그다지 이색적인 것이 없는 공간이었지만 그곳을 소개해 준 관리인, 스기야마 고이치로Sugiyama kouichiro의 범상치 않은 스타일과 열정적인 설명에서 레이센소의 현재와 미래를 예견할 수 있었다. 이렇듯 둘 다 짧게 이루어진 리서치는 쉽게 그들의 감정적 폭을 확보할 수 없어서 많이 아쉬웠다.

우리는 짧은 일정동안 많은 것을 담으려 두 동공을 최대한 열고 다녔다. 나의 선부는 판단 일지는 모르나, 후쿠오카는 완강한 침묵을 자처했다. 어딜 가든 그랬다. 아트 코디네이터



인 미야모토 하츠네Miyamoto hatsune씨와의 인터뷰에서도 우린 절감했다. '말할 수 없음, 말해서 더 슬픔, 어쩔 애써 현실을 공명 상태로 박제해 현실을 부정하는 듯한 침묵…….' 하지만 그 침묵은 우리나라에서는 차츰 사라져가고 있는 그들의 '문패'에서, 그래도 자신의 존재를 굳건히 지켜내려는 강인한 의지로 형상화돼 내게 보여 졌다. 그래서 그들에게 연민을 떠나 진정 미소를 보낸다. 미나미 구, 오아시Minami ku, Ohashi에 있는 이노우에 아야코Inoue ayako씨 외 2인의 작업실로 향하는 길에서 만난 일본 중산층의 가옥에서 그것을 봤고, 그들의 자존감을 읽었다. 하지만 어떤 상황에서라도 그렇듯 어디를 보는가, 어떻게 보는가, 언제 보는가에 따라 여러 해석이 교차하리라는 전제가 이미 기반 되었기에 감정의 동요는 그리 크지 않았다.

'무빙 청년통신사'의 여정이 거의 끝나갈 무렵 우리는 부산문화재단의 국제교류팀 일행과 타국을 함께 걸으며 '우리가 현재 이곳에 있는 이유'에 대해 고민했다. 그렇게 시작된 발걸음에서 우리는 잠시 하나가 됐다.

사람들이 내딛는 발걸음에서 길은 만들어지고 그 뒤를 잇는 걸음걸음에서 땅은 더 단단해진다. 그러다 그 차츰가 끓긴 자리에 돌아난 풀들의 함성은 앞선 것들보다 더 큰 사유의 의미로 새겨질 때가 있다. 아이노시마에서 만난 공기와 이름 모를 풀들의 향기는 내리는 비와 함께 그것을 말해주고 있었다.

아이노시마에서는 여러 겹의 지도를 볼 수 있었다. 그동안 존재했던 역사의 질 곡만큼이나 깊고 복잡한 지도였다. 거기서 우리는 과거의 지도를 펼쳐 현재와 미래의 지도를 그리고자 했다. 그것은 현재의 우리 발자국과, 우리의 몫으로 고스란히 남겨질 한 일간의 미래였다. 하지만 쉽게 비가 멈출 것 같지는 않았다.

그런데 아이러니하게도 비가 내리는 아이노시마는 앞의 현실과는 다르게 정겹고 포근했다. 우리는 조선통신사가 걸었음직한 해안도로를 따라 걸으며 그들의 여정을 대략 확인 했다. 그리고 아이노시마에서 지휘를 맡은 부산문화재단 박승환 팀장의 설명에 따라 조선통신사의 흔적을 꼼꼼히 스캔하며, 그들을 역사적으로 고증考證하고자 했다. 또한 보관되지 못한 그들의 소리를 애써 듣고자 했다. 그렇게 우리는 산등성이의 한적한 오솔길에서 제법 모양을 갖춘 빗줄기에 동화돼 잠시 표정 없이 눈을 붙혔다. 우호友好……. 왜! 이 말은 항상, 어디서나, 어느 상황에서나 똑같은 일관성을 갖지 못하는가?'

한. 일. 관. 계. 언제나 무겁다.

하지만 아이노시마의 <島の食堂>에서 미모의 주인공



이 만들어 준 우동은 열흘 넘게 먹었던 일본 음식 중 가장 내 미각을 즐겁게 하며, 비 맞은 몸을 말려주었다. 그 옛날 조선통신사 일행도 이러한 느낌이었을까? 지울 수 없는 아픔과 기억은 어차피 과거형이자 현재형이고 어쩔 미래형이 될 가능성이 짙다. 지금까지의 어떤 역사를 봐도 그랬다. 그래도 사람과 사람이 맞잡은 손의 뜨거움은 새록새록 새겨져야 하고 존중돼져야 한다.

p.s. 아울러 이 가볍고도 무거웠던 여정에 함께 했던 서상호·박항원·권도유·김효영·오여준 선생님께 감사드린다.

글_ 박항원

2014년 11월 28일부터 12월 10일까지 짧지도 그렇다고 길지도 않았던 일본 후쿠오카에서의 “청년 통신사” 생활이 끝났다. 낯선 땅을 밟아본다는 설렘과 일상에서 잠시 탈출한다는 환희, 그리고 새로운 사람들과의 만남들은 머릿속을 상쾌하게 하면서 흥분되게 만드는 일

이었다. 더군다나 비행기가 아닌 배로 떠나는 여행은 머릿속에서만 상상하던 풍경을 실제의 세계에서 볼 수 있었던 신비로운 경험이었다. “망망대해”라는 것이 무엇을 뜻하는지 알 수 있었던 시간이었었고, 암흑과 같은 바다를 볼 수 있었던 것도 신선한 경험이었다. 그렇게 나는 미지의 세계를 관찰하는 탐험가가 되어 일본 큐슈지방의 후쿠오카에 도착하였다.

이번 “청년 통신사”의 일정은 빈틈없이 빽빽한 스케줄의 연속이었다. 후쿠오카 트리엔날레가 열리는 “아시아미술관”에서의 짧은 전시일정, “테트라”라는 이름을 가진 대안공간에서의 전시 그리고 후쿠오카에 있는 문화예술공간 탐방과 기획자, 작가들의 인터뷰를 진행해야 했기에 결코 마음 편히 여유로운 생활을 즐길 수는

없었다. 하지만 그들과 떠돌고 마시며 친분을 쌓았고 그들의 문화와 생활방식에 대해 조금이나마 알 수 있었던 소중한 시간들이었다.

그중에서도 가장 기억에 남는 일은 “테트라”에서의 인터뷰가 아닐까 생각한다. 우리나라의 미술대안공간과 비슷한 개념을 가진 이곳은 전시와 공연 등이 이루어지는 복합 문화공간이었는데 무엇보다도 내가 흥미롭게 생각되었던 부분은 바로 운영방식이었다. 보통 우리나라의 민간이 운영하는 대안공간, 복합문화공간 같은 경우 국비나 시비를 지원받는 시스템



을 유지하고 있는 경우가 허다하다. 장점은 일정한 “기금”으로 운영되기에 다양한 제도로 작가를 지원하거나 피드백을 받을 수 있는 장치가 마련되어 있고 실험적인 작업을 하는 작가들의 등용문으로서 또한 큐레이터의 역량이 들어있는 기획전시도 간간히 볼 수 있다는 것이다. 단점은 무수히 많겠지만 그중에서도 “기금”이라는 시스템에 갇혀 있다는 것인데, 그렇게 뜻하지 않은 종속이 사실 무수히 많은 공간들을 사라지게 했고 자생력을 가질 수도 없게 했다고 생각한다. 그런데 테트라라는 공간은 기금을 받지 않고도 자생력을 충분히 가지고 있는 공간이었다. 그 방식이 새롭거나 신선하진 않았지만 실천하기도 굉장히 어려운 시스템이었다. ‘테트라’에는 10명의 운영위원이 있는데 그들 각자가 얼마간의 돈을 매달마다 지원하는 방식으로 공간을 운영하며 그러한 일들이 어떤 의무감 때문이 아니라 자신이 원해서 하는 일이었고 도중에 그만두고 싶다는 생각이 들면 아무 거리낌 없이 그 일을 그만둬도 상관없었다. 또한 창작자가 전시나 공연을 할 때는 대관료를 내고 공간을 빌리는 방식이어서 일정한 수익도 창출되는 것이었다. 전혀 새로운 것도 없는, 누구나 한번쯤 생각해 봤을 이 일들이 자연스레 흘러간다는 것이 나에겐 신선한 충격이었다. 운영하는 주체 누구나 부담을 느낄 필요 없었고 자신들이 하고 싶은 대로 자유롭게 그 공간을 꾸리는 즐거움이 부러웠으며 과연 이 일들이 우리나라에선 실천 가능할까? 하는 궁금증도 유발 시켰다. 이 일을 계기로 새롭고 신선한 일들이 멀리 생각 속에서만 굴러가는 것이 아니라 조그만 실천 속에 탄생된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는 경험이었다. 물론 ‘테트라’의 속살을 다 들여다보고 얘기를 한 것은 아니었고, 단점도 분명히 존재하겠지만 그러한 일들이 일상의 일들처럼 담담히 이뤄진다는 것은 절대 쉬운 일이 아니기에 이 글에서 소개할만한 충분한 가치가 있다고 생각하며 우리나라의 여러 공간에서도 실천해볼만하다고 생각한다. 즐거움이란 두려움 속에서 충분히 가치를 느끼며 의무감이 아닌 자신의 행복을 위해서 행하는 일이지 않을까 말이다.

글_ 김효영

부산보다 남쪽에 위치해있어 더 따뜻할 거란 막연한 기대를 품고 배에 올랐다. 그러나 내 기대와는 달리 배에서 검푸른 바다의 울렁임을 온몸으로 느끼며 밤을 보낸 뒤 선박에 내렸을 때 코끝이 찌려나갈 듯한 혹독한 추위만이 나를 반겼다. 후쿠오카는 부산-서울 거리보다가 까웠지만, 나는 너무 멀리 있다고 생각한 모양이었다. 캐리어 속 얇은 옷가지들을 생각하자니, 순간 눈앞이 아득하기만 했다. 그래서 나는 그 추위에 적응하기 위해서 몸을 바꿔야만 했다. 변화된 조건 안에서 감각들을





키우기 위해서 나는 오히려 그 추위들을 온몸으로 감당해내면서 새로운 몸가짐을 만들어야 했던 것이다. 나의 몸가짐의 변화는 어쩌면 ‘청년통신사’의 행적들과 다르지 않았다. 가방들의 이동은 공간마다 그 의미들이 변용되도록 만들었고, 부산의 젊은 예술가/기획자/활동가들의 ‘이동’은 새로운 만남이 진행될 때마다 그에 따른 지각방식이 도입되어야만 대화나 만남이 지속가능한 일이기도 했다. 그 이동은 부산연안여객터미널에서 하카타항, 캐널시티, 후쿠오카 아시아 미술관, 테트라, 곤야, 레시센소 등의 공간과 기획자, 작가들을 만나면서 그 의미들을 가질 수 있었다. 그런 점에서 이번 프로젝트에서 ‘이동’이라는 것은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고 할 수 있으며, 그 이동은 조선통신사의 원류를 회미하게나마 찾는 것으로 읽어볼 수 있겠다.

나는 선발대보다 이들 간격을 두고 출발한 탓에, 테트라에서 진행된 전시를 시작으로 그들과의 만남을 시작하게 되었다. 아주 작은 가옥구조를 변형하여 만들어진 테트라는 나카스강의 줄기를 따라 뻗어있는 좁은 골목길 사이에 위치하고 있었다. 환락가가 빼곡히 들어선 나카스 시내를 등지고 있는 그 골목은 일반가정집과 작은 밥집들이 위치해 있어 인적이 드문 편이었고 한적했다. 그 중 테트라의 공간은 전면 유리창으로 되어있어서 누군가가 길거리를 지나다닐 때마다 그 공간을 들여다보도록 만들었다.

테트라 공간과의 인터뷰에서, 공간 대표와 운영진 중 한명인 작가와 대담을 나누게 되었는데, 인상깊었던 것은 11명의 예술가들이 운영진으로 구성하여 달마다 운영비를 내고 전시나 공연, 작업실로 활용하고 있다는 것이었다. 자유롭게 운영하되 각자가 전시, 공연을 하고 싶은 경우에는 미리 날을 잡고 공간을 활용하는 방식이었다.

테트라와는 좀 다르지만, 자생적으로 공간을 지속해나가고 있는 공간들이 있었는데, 곤야와 레시센소였다. 레시센소는 1955년대 전후에 지어진 건물로 한국의 맨션과 같은 형태라

할 수 있다. 이 건물은 현재에 이르기까지 철거의 위기를 몇 번 겪어야 했지만, 각각의 공간에 문화공간들이 입주하면서 문화 행사들을 지속하고, 그러한 문화적인 ‘함’들이 모여 문화 중심 공간으로 자리 잡을 수 있게 되었다. 레시센소는 디자인, 미술, 건축 등 다양한 단체들이 입주해 있으며, 다목적실이나 휴게실은 무료로 누구나 사용할 수 있도록 되어있다. 후쿠오카 트리엔날레에서 전시공간으로 활용하기도 하며, 다양한 음악공연 등 이벤트가 열리고 있다.

공간들을 둘러보며 이야기해봤을 때, 이들에게서 받을 수 있던 인상은 오래된 것들에 대한 애정과 ‘살아남기’에 대한 고민들의 흔적이었다. 화이트큐브로 무장한 갤러리들과 달리, 그들은 1950년대 건물들을 보전하면서 공간을 꾸려 활동을 지속해나가고, 여러 공간들이 입주하도록 하고 임대료를 모아 수익을 낸다든지, 수익을 위한 프로그램들을 통해 새롭게 모색한다는 것이다.

놀라웠던 것은 후쿠오카의 문화공간들은 국가의 지원금 없이 활동한다는 것이다. 부산에 있는 공간들이 대부분 문화재단 지원금에 의존해있는 반면, 후쿠오카에 있는 공간들은 자생하는 경우가 많다. 또한 지역작가들 또한 지원금 없이 작업을 지속해나가고 있었고, 전시나 그 외에 드는 비용을 작가가 온전히 감당해내고 있었다. 물론 부산작가들이 지원금에 전적으로 의존하고 있는 것도 아니고, 대부분 미술학원 강사나 아르바이트를 전전하며 생활하는 것은 분명하지만, 일본에서는 지원금이 공간운영비나 지역작가의 창작비로 책정조차 안 된다는 것은 다소 놀랄만한 일이었다(책정이 되더라도 아주 소액으로 되고 지불방식이 작가가 먼저 지불하고 난 뒤 지원이 되는 터라, 지원을 받더라도 귀찮고 힘든 일이라 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원금이 없어서 표현이나 활동에 자유롭다는 어떤 기획자의 말은 심본 이해가는 말이기도 했다.

그러나 그 자유롭다는 말은 어떤 체제나 연대로부터 자유롭다는 말이었을까? 내가 후쿠오카에 머물며 많은 (미술)작가들을 만나본 것은 아니지만, 그들은 자기의 내면에 집중하며 개인적인 작업을 하고 있다는 느낌을 많이 받았다. 일본의 한 작가의 말을 빌리자면, 한국에서는 그래도 체제나 사회구조에 대해 비판하는 작업들이 있는 반면, 일본 특히 후쿠오카에서는 그런 성향보다는 내면의 이야기에 집중하는 경향들이 대부분이라는 것이었다. 인터뷰 중에서도 ‘후쿠시마’나 ‘비엔날레 정책에 대한 비판’, 혹은 ‘문화정책에 대한 이야기들을 물었을 때, 상당히 소극적인 반응들을 보였던 것도 일맥한다.

그럼에도 이번 무빙청년통신사는 부산과 후쿠오카의 작가들의 작업들을 소개하고, 만나게 함으로써 협업의 가능성들을 확인할 수 있었다. ‘청년통신사’의 첫 걸음은 기존의 선배세대의 네트워크를 넘어서 새로운 길들을 내기 위한 하나의 시작하는 발걸음이라 생각된다. 조선통신사가 그러했듯, 개인과 개인을 넘어서 지역과 지역의 연대를 조직하기 위한 첫 걸음이 예술?문화가 아닐까?

글_오여준

11월30일에 후쿠오카 하카타항에 첫 발을 내딛었다. 우리 팀원들이 계획한 일정이 그대로 잘 될지 두근거리는 마음과 나의 역할에 대한 부담감을 안고 가볍지도 무겁지도 않은 한 걸음을 내딛었다. 오자마자 캐널시티에 가서 가방 4개를 설치하고 그 곳에 지킴이로 내가 서있게 되었다. 그 전에 캐널시티 경비원은 저녁이 되면 관광객들이 특히 중국인 관광객들이 많이 몰리기 때문에 아마 작품을 잘 지켜보아야 할 것이라고 얘기했기 때문에 긴장을 놓을 수 없었다.



그날 저녁에 가방이 설치되어있는 후쿠오카 아시아미술관에서는 무빙 트리엔날레 인 부산팀과 토론을 할 수 있는 장이 만들어졌다. 나는 그 곳에 가야했기 때문에 잠시 지킴이 역할을 다른 사람과 바꾸었다. 운이 좋았는지 내가 있었을 때에는 관광객이 많이 오지 않았고 오히려 그곳에 사는 일본인 아이들이 작품에 대해서 관심을 보였다. 또한 얼굴이 붉어지는 일이 일어났는데 그 일이 한국인 관광객이 했었기 때문에 더욱 마음이 좋지 못했다.

다음 날 짧은 가방 설치를 마치고 후쿠오카 아시아 미술관과 도보로 10분거리인 artspace tetra에 가방을 설치했다. 그리고 가능한지 여쭙고 테트라에서 인터뷰를 시작했다. 다음날부터 테트라에서의 본격적인 가방 전시가 시작되었다. 가장 먼저 테트라에서 가방을 지키고 있는 사람은 나였는데, 월요일이라 그런지 생각보다 사람들이 많이 오지 않았지만 그래도 일본의 큐레이터 한분께서는 전시가 시작되었다는 기념으로 하카타 명물의 계란소면과 함께 응원의 발걸음을 해주셨다. 다음 날에는 전시가 아닌 인터뷰에만 집중을 할 수 있었는데, 인터뷰를 하면서 알게 된 것은 확실히 일본은 외국이라는 점이다. 일본의 작가들은 대부분이 자생적인 경제능력을 갖고 있었다. 작가들이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환경이 웬지 모르게 부럽다는 생각도 함께 들었다. 그들은 조그마한 마을을 이루며 살고 있는 것 같았다. 우리가 방문한 곤야나 레이센소 같은 경우도 아파트를 개조해서 혹은 그대로 사용하면서 전시 공간으로도 활용을 하며 게스트 하우스나 사무실로 사용되고 있었다. 그 곳은 하나의 마을 같아 보였다.

14일간 머물면서 일본의 작가들과 큐레이터분들 그리고 작가들의 스튜디오에도 방문해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지에 대해서 한번 결눈질 수준이지만 무언가 다르다는 것을 느낄 수 있었다. 한가지 신기한건 그들의 얼굴에 어두움이 없었다는 점이다. 그들 또한 부업과 작품 활동을 함께 하고 있었다. 그 부업으로부터 나온 경제로부터 그들의 작품 활동과 자신들의 생활을 이어나갈 수 있다는 부분 하나가 나에게겐 씩씩한 미소를 짓게 했다.

글_권도유

부산-후쿠오카를 있는 이번 조선-청년통신사는 부산에서 활동하는 두 명의 작가와 오픈스 페이스 배 디렉터, 전 메이드인 부산 코디네이터와 공간 힘의 큐레이터와 코디네이터등이 함께한 스페셜 팀이다. 권도유, 박항원, 서상호, 박경애, 김효영, 오여준으로 이루어진 우리 6명이 2014년 조선통신사로 뽑힌 명이다, 우리는 조금은 급하게 결성되었으나 탄탄한 기본기와 화끈한 실행력으로 조선통신사가 되는 기회를 얻게 되었다. 부산의 젊은 예술인인 우리들이 후쿠시마를 방문하여 (선배님들의 도움으로) 후쿠오카 지역의 젊은 예술인들과 알게 되었다. 그리고 대안공간들을 방문하여 그곳의 미술동향과 현실 지원방향을 알아 볼 수 있었다. 그리고 언어와 국가도 다른 바다 너머에 있는 사람들에게 부산에 대해 그리고 우리의 문화에 대해 알리는 좋은 기회를 얻을 수 있었다.



11월 28일 부산을 출발해서 2주 동안 이루어진 우리들의 통신기행은 메이드인 부산-무빙 트리엔날레와 함께 했다. 전시 취지에 맞게 이루어진 무빙, 작품들의 이동은 부산에서 시작하여 우리를 태워준 배 카멜리아호 안에서의 즉흥적인 전시(배안에서 당일칸)에서부터 시작해 후쿠오카의 아시아 미술관, 캐널 시티, 그리고 대안공간 테트라를 거쳐 다시 부산 또다시 또가 2층의 사무국으로 돌아왔다. 우리들과 함께 2주 동안 함께 움직인 작품들은 부산과 후쿠오카의 때가 묻어 깊이가 더해진 느낌이다.

아시아 미술관은 후쿠오카 트리엔날레가 끝나는 피날레를 함께 하였다. 미술관 8층에서 열린 성대한 파티는 과거 조선통신사가 받았던 호화로운 대접이 아니었을까 생각한다. 11월 29일부터 31일까지의 짧은 전시기간임에도 불구하고 아시아 미술관에서의 전시는 많은 시민들의 참여와 반응을 이끌어냈다. 11월 29일 당일 후쿠오카의 유명한 쇼핑센터인 캐널 시티에서 함께 설치된 부분전시는 작품의 안전을 위해 당일 설치, 철수를 하였다. 이후 작품들은 모두 테트라로 이동하여 12월 1일부터 설치에 들어가 일주일 동안 후쿠오카의 많은 예술인과 함께 했다. 아시아 미술관에서 테트라로의 가방의 이동은 함께한 모두에게 좋은 추억이 되었을 거라 생각한다. 걸어서 10분 남짓한 거리를 양손 가득히 가방을 끌고 갈

이 걸었던 많은 분들에게 감사드린다.

빠듯한 일정에도 불구하고 12월 1일에 테트라를 12월 3일에 곤야를 12월 4일에 레이센 쇼를 방문하여 후쿠오카의 대안공간에 대한 사정을 알아보았다. 12월 6일에는 부산 후쿠오카 예술인이 함께 모여 장장 3시간 반에 이르는 열띤 토론회를 경험했다. 테트라에서 열린 이날의 토론은 부산과 후쿠오카의 젊은 예술인들의 실질적인 만남을 이루어냈다. 토론에서 나온 양국의 교류에 대한 새로운 아이디어들은 이후에 일어날 또 다른 협력의 가능성을 볼 수 있었다.

12월 7일은 일본의 예술가들이 함께하는 작업실을 방문해 그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는 시간을 나누었다. 이노우에상과 치사토상의 친절하 안내와 그들의 작품에 대한 이야기를 들으며 좋은 차와 맛난 타코야끼를 대접받았다.

다음날인 12월 8일은 아이노시마라는 섬을 방문해 그곳에 묻어있는 과거의 조선통신사의 발자취를 돌아보는 시간을 가졌다. 고양이의 천국이라는 이름으로 유명한 이 곳 아이노시마가 과거 조선통신사들이 이동하는 경로라는 것을 알게 되었다. 시간이라는 거대한 흐름으로 인해 이미 과거의 영광은 찾아보기 어려워지만 마을안내문에 써진 조선통신사를 환영한다는 국어는 조금 감동적이었다. 섬에 있는 유일한 식당에서 먹은 우동 한 그릇으로 온기를 회복한 우리는 아쉬운 마음을 뒤로하고 숙소로 돌아왔다.

마지막 날 짐을 싸면서 돌아오는 길이 아쉬웠으나 다음번을 기약하며 부산으로 돌아왔다. 2주간의 후쿠오카는 우리들에게 새로운 힘이 되어 계속해서 흐를 것이라 믿어 의심치 않는다. 양국의 문화교류에 작게나마 도움이 되어 뿌듯하다. 부산문화재단의 모든 분들에게 감사드린다. 그리고 힘내서 다녀온 우리 청년통신사 팀에게도 감사를 드린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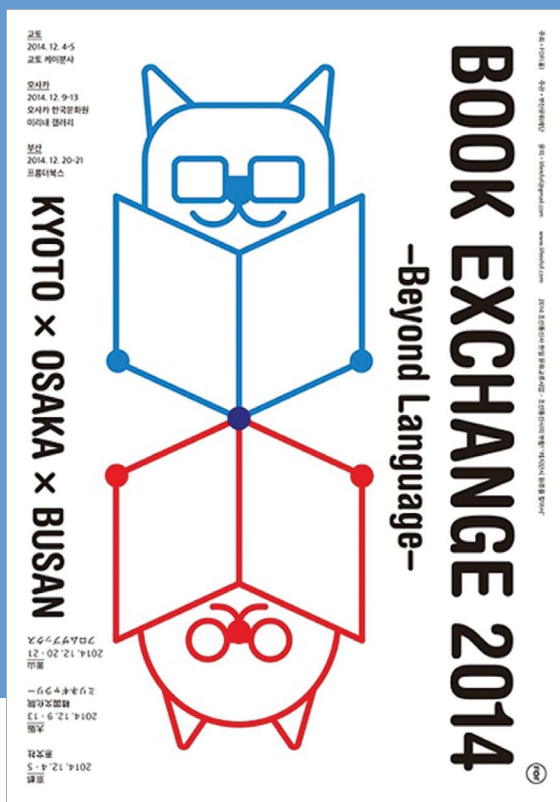
2014 조선통신사의 부활!
레지던시 원류를 찾아서 성과보고서

03 교토·오사카 지역

조수인
김보경



프로젝트 일환으로 진행된 한일도서교류전 2014



2014 조선통신사의 부활! 레지던시 원류를 찾아서 성과보고서

BOOK EXCHANGE 2014 - Beyond Language -

2014. 11. 07(fri) ~ 2014. 12. 28(sun)

- ▷ 장소: 교토 오사카 / 일본
- ▷ 책임코디네이터: 조수인
- ▷ 후원: 부산문화재단
- ▷ 참여 작가: 조수인, 김보경



역사에 바탕을 둔 새로운 문화컨텐츠 창출을 위하여 기획된 <BOOK EXCHANGE 2014>는 조선통신사의 역사적 의미를 되새기고 더 나아가 21세기형 조선통신사의 부활을 바라는 마음으로 시작되었다.

임진왜란 이후부터 한말까지 총 12회에 걸친 조선통신사 파견은 세계적으로도 이례적인 사절단의 역사를 갖고 있으며, 그로 인한 양국문화의 발전은 보이지 않는 곳까지 구석구석 영향을 미쳤다고 할 수 있다. 17-18세기의 조선통신사들을 통하여 전파된 타국의 문물과 새로운 경험들, 그에 따른 자국의 문화현상 등은 새로운 출판소재로 작용하여 당대의 출판업을 더욱 발전하게 만드는 계기가 되었다. 조선통신사 사절단이 직접 가지고 간 책은 교류의 일차적 통로가 되었고, 당대 조선의 지식층이었던 조선통신사와 일본의 지식층간의 필담창화는 상업출판의 발전과 맞물려 많은 출판물을 양성하게 되었다. 이와 더불어 양국에서는 견문록이 출간되는데, 이는 개방적 세계관을 소유하고 있던 일부 실학자들에게 학문적 호기심의 대상이 되었다. 우리는 양국의 출판업에 지대한 영향을 끼친 조선통신사의 발자취를 따라 일본출판업의 현주소를 짚어보고자 이번 프로젝트를 기획하게 되었다.

전 세계적으로 출판 시장의 자리는 좁아지고 있는 추세이며, 문화의 중심이 되는 서점의 입지는 더더욱 좁아지고 있는 상황이다. 1994년에 5,683개에 이르렀던 우리나라의 서점은 작년 기준 1,700개 정도만 남았고, 현재는 그마저도 없어지고 있는 추세다. 이런 현상은 출판강국 일본도 비슷해서 1994년에 26,224개였던 서점이 작년 기준 14,000개 정도가 남았고, 현재도 하루에 하나 꼴로 문을 닫는다고 한다. 하지만 한국은 약 28,000명당 서점 하나인데 반하여 일본은 약 8,640명당 서점 하나 꼴로 여전히 인구대비 일본의 서점상황이 우세하다. 온라인 서점과 대형서점의 할인 경쟁 사이에서 특히 동네 서점이 빠른 속도로 없어지고 있는 추세 속에, 이대로 사라지지 않겠다며 남다른 기획과 컨셉으로 독자를 끌어 모으는 일본의 서점들이 있다. 우리는 문화의 중심이자 문화의 힘이 되는 일본 서점들의 개성 있는 운영방식을 연구하여 부산지역민의 출판업에 대한 관심을 고조시키고, 양국의 서점 교류를 통하여 부산시민들이 더욱 다양한 책들을 경험할 수 있도록 하는 것에 그 최종 목적을 둔다.

전시의 컨셉은 <BEYOND LANGUAGE>로, 언어의 장벽을 뛰어 넘는 책들 - 일러스트책이나 사진집, 디자인서적 위주의 책들을 선택하여 전시하는 것으로 잡았다. 물론 양국의 언어로 설명이 첨부되지만 그림이나 사진, 디자인 등을 통하여 책 그 자체로 내용을 느낄 수 있기를 바랬기 때문이다. 한국의 일러스트레이터 책과 사진집, 디자인 서적과 잡지 등을 일본에 가져가 전시를 하고, 반대로 일본에서 가져온 책을 부산에서 전시를 하는 컨셉이다. 일본 전시는 12월 4일과 5일 양일 간 교토 <케이분샤>에서 전시 한 후 오사카로 이동하여

12월 9일부터 13일까지 오사카 한국문화원내 <미리내 갤러리>에서 전시하는 일정으로 진행되었다. 이어지는 부산 전시는 12월 20일과 21일 양일간 부산 교대에 위치한 독립출판 서점 <프롬더북스>에서 전시되었다.

조선통신사가 다녀갔던 많은 도시들 중 칸사이 지역의 두 도시를 선택한 이유는 도쿄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오사카나 교토에서는 도서전을 접할 기회가 적기 때문이다. 실제로 도쿄에서는 매년 7월에 열리는 도쿄국제도서전을 비롯하여 9월에는 도쿄아트북페어가 개최되는 등 다양한 도서전시회가 열리고 있다. 이는 한국도 마찬가지여서, 서울에 비하여 북페어를 접할 수 있는 기회가 상대적으로 적은 부산과 여러 가지로 닮은 느낌이 든다.

이번 전시는 기대 이상으로 많은 분들이 호응해 주셔서 더욱 그 의미를 새길 수 있었다. 교토의 케이분사서점은 일본 내에서도 유명한 서점으로, 교토를 찾는 내국인 여행자들도 많이 찾는 곳이다. 일부에서는 '문학소녀의 성지'라고도 불리는 이곳 케이분사서점의 점장인 호리베씨는 전시물에 많은 관심을 보이셨고, 전시 서적 중 일부를 주문할 수 있는지 문의해 오셨다. 전시 일정 중에 진행된 Little Press 관련 workshop에서는 교토조형예술대학 학생들의 관심이 집중되기도 하였다. 일본뿐 아니라 아시아의 책들을 선택하여 유통하는 업체 관계자 역시 책에 많은 관심을 보이며 다음 미팅을 추진하기도 하였다.



교토 이치조지에 위치한 케이분사 전경



교토조형예술대학 workshop



케이분사 COTTAGE Gallery 전시 모습



교토 전시 전경



오사카 한국문화원 외관

교토의 전시는 서점 내에 위치한 갤러리에서 진행되어 책 자체에 관심이 많은 관객들을 만날 수 있었다면, 오사카의 전시는 한국대사관과 연결되어 있는 한국문화원에서 전시 되었기에 한국문화에 관심이 많은 관객들을 만날 수 있었다. 매일 진행되는 한국어 수업을 위해 한국문화원을 찾는 이들에게 새로운 형태의 책들과 이미지 위주의 책들은 한국어와 한국문화에 더욱 관심을 갖게 되는 계기가 될 수 있을 것이다. 오사카에서의 전시는 사실, 처음부터 계획된 일정은 아니었다. 교토에서 더 길게 전시를 하는 것이 원래의 계획이었으나, 케이분샤 갤러리의 12월 일정이 이미 다 차서 일정을 넉넉하게 빼지 못하였다. 다행히 오사카 한국대사관 측의 도움으로 오사카 한국문화원을 소개 받을 수 있었고, 까다로운 심사기준을 통과하여 전시 승인을 받기까지 꽤 오랜 시간이 걸렸다.



오사카 한국문화원 미리내 갤러리 전시 전경

우리는 교토와 오사카 전시 기간 틈틈이 일본 내의 소규모 서점들과 대형 서점들을 방문하며 부산 전시를 준비하였다. 온라인 서점과 대형 서점의 할인 경쟁 사이에서 특히 동네 서점이 빠른 속도로 없어지고 있는 추세 속에, 이대로 사라지지 않겠다며 남다른 기획과 컨셉으로 독자를 끌어 모으고 있는 일본의 크고 작은 서점들은 그들 나름의 비전과 전략이 있었고, 실제 운영을 맡은 점장들은 이러한 현실을 비관적으로만 보고 있지는 않았다. 우리는 문화의 중심이자 문화의 힘이 되는 일본 서점들의 개성 있는 운영방식을 지속적으로 연구하여

출판업에 대한 관심을 고조시키고, 양국 서점 교류를 통하여 더욱 다양한 책들이 소개되기를 기대해 본다. 전시를 찾았던 모두가 한 마음으로 바랬던 것처럼, 이러한 행사가 일회성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꾸준히 매년 진행될 수 있다면 더 없이 좋을 것 같다.



케이분샤 점장 호리베씨와 함께



오사카 한국문화원 스기야마씨와 함께



부산 교대앞 서점 프롬더박스에서의 전시 모습



부산 전시 모습



부산교대앞 프롬더박스 외관

〈전시 책 소개〉

1) 일러스트



파란고양이 / 저자: 허지영

비 오는 어느 날, 파란 고양이는 어디로 갔을까? 〈파란 고양이〉는 희끗한 머리의 남자와 고양이의 일상, 그리고 그 속에서 벌어지는 신비로운 여행을 잔잔하면서도 화려하게 표현한 그림책이다



땅콩나라 오이제국 / 저자: 윤예지, 벤자민 필립스

땅콩버터와 오이피클의 기원에 관한 숨겨진 이야기를 담고 있는 엉뚱하면서도 독특한 매력의 그림책. 책 제목과 내용에 등장하는 ‘땅콩나라’(피넛버로우, Peanutborough)와 ‘오이제국’(큐컴버랜드, Cucumberland)은 영국의 지역인 ‘피터버러’(Peterborough)와 ‘컴버랜드’(Cumberland)에서 따온 것이다.

여우모자 / 저자: 김승연

우연히 만난 엄마 여우의 부탁으로 아기 여우를 돌보게 된 소녀가 엄마 몰래 아기 여우를 돌보기 위해 아기 여우를 모자인 척 머리에 쓰고 다니게 된다. 아기 여우와 함께 지내게 되면서 조금씩 세상과 소통하는 법을 배우게 되는 소녀의 이야기가 펼쳐진다.



JAMBOREE / 저자: GREENGREEM

그린그림의 작업실 겸 책방 프롬더북스에는 그림이 있다. 이 그림은 박성진이 한지 위에 오일파스텔을 이용하여 2011년 여름에 완성하였다. 책은 그림을 근접, 분할 촬영한 이미지로 구성하고 2014년 5월10일 100부 발행하였다.

NEPTUNE BLUSTAR / 저자: GREENGREEM

넵튠블루스타라는 가상 농구단을 만들고 넵튠블루스타의 선수를 소개하는 책이다. 총 11명 선수 개개인의 특징을 자세히 설명해 놓았다.



별을찾아서 / 저자: GREENGREEM

“내 눈을 비추는 별들이 얼룩으로 보이고 햇살은 내 눈을 찌르는 가시 같다.” 책은 이 글에서 시작되었다. 이 책에는 잃어버린 별을 찾고 싶은 바람과 지금 나의 일상이 묻어있다. 주된 내용은 주인공이 잃어버린 얼굴을 찾아 친구와 함께 떠나는 모험에 대한 이야기이다.



리드앤리듬 / 저자: 애송

주인공 최동혁을 둘러싼 젊은 직장인 남녀 4인의 짧지만 긴 여운이 남는 이야기. 총 4편의 4인4색 공감 만화.

SHORT CUT / 저자: 애송

머리를 숏컷으로 자리고 느낌을 담은 작은 책

개를 그리다 / 저자: 정우열

우디 앨런을 닮은 까탈스러운 개 ‘올드독’으로 오랫동안 사랑 받아온 만화가 정우열의 첫 번째 세이. 올드독 정우열의 진짜 개 이야기를 32편의 만화와 300여 컷의 컬러사진에 담았다.



이랑 네컷 만화 / 저자: 이랑

음악가이자 영화감독, 만화가인 ‘이랑’이 네컷 만화의 형태로 예술가로서의 현재와 관계, 일과 생활을 그렸다. 실제 인물을 바탕으로 그려졌지만 중간중간 허구와 판타지가 개입하면서 〈이랑 네컷 만화〉는 영화, 만화, 음악 모두를 이어가는 사람만이 그릴 수 있는 결말을 향해 네 컷씩 쌓아간다.



요리그림책 합본 / 발행: 유어마인드

요리그림책(Cooking Drawing Book)은 일러스트레이터의 그림을 대표작처럼 나열하지 않고 '음식과 요리'라는 주제 아래 모든 작업을 새롭게 진행한 모음입니다. '아침, 점심, 저녁, 밤과 꿈'의 네 가지 분류로 재구성한 총 32편의 요리그림과 만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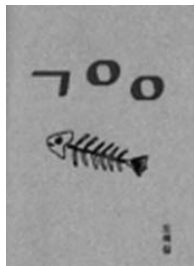
세밀화집, 허브 / 저자: 이소영

식물세밀화가 이소영의 허브 도감 《세밀화집, 허브》는 30종을 중심으로 총 56종의 허브 식물 형태 정보를 수록한 책이다. 식물을 소재로 아름다운 그림을 그리는 것이 아니라 명확한 식별과 과학적인 분류를 목적으로 표본으로서의 형태 기록에 집중했다. 철저하고 꼼꼼한 방식으로 그려진 세밀화를 통해 우리 가까이에 있는 여러 식물을 최대한 자세히, 그리고 천천히 오래 바라보길 권한다.



대학고양이도록 / 저자: 김희영

한국의 부산대학교에는 백 마리가 넘는 고양이들이 살고 있습니다. 그 중 제가 사랑하는 고양이 몇몇의 마음의 이야기를 상상하며 그렸습니다. 때로는 인간보다 강인하고 거의 언제나 인간보다 사랑스러운 그들의 길 위의 생을 존경합니다.



700도색집 / 저자: 김희영

동심으로 돌아가 즐겁게 색칠하실 수 있는 고양이 컬러링북입니다. 고양이와 고양이를 둘러싼 잡화들, 그리고 고양이의 영원한 라이벌이자 친구인 개가 그려져 있습니다. 빈 공간을 활용해 자신만의 고양이 책을 만드는 즐거움을 느끼실 수 있습니다. 핸드백에 넣어 다니세요!



POTTERY COLLECTOR / 저자: 임화인

부산 망미동의 작은 카페를 꾸리며 5년 동안 모은 빈티지 커피잔들 중 아라비아 핀란드사의 잔들만 모아 드로잉했다.

소녀의 푸른 속 / 저자: 김근예

우리는 푸른 빛을 향해 달리는 듯 하지만 결국엔 자신만의 빛으로 소녀를 바라보게 됩니다. 그리고 그 소녀 속에서 자신을 대면하게 됩니다.

Dream List / 저자: 김근예

우리의 꿈은 다양한 형태를 가지고 있습니다. 어린아이의 허무맹랑한 상상이 가득 찬 꿈부터 현실과 이상이 각자의 비율로 섞인 꿈까지 우리는 꿈을 품고 살아갑니다. 그 꿈들을 한 장, 한 장 그려내며 오늘은 또 어떤 꿈을 꾸는지 머릿속에 떠올려봅니다.

킹오브킹 히치하이킹 / 저자: LAZY LADY

“벤츠를 보면 히치하이킹이 떠오른다.” 이 생각에서 출발하여 터키에서 히치하이킹 경험담을 담은 그림책이다. 장소가 아닌 만남과 이동이 목적이 되는 여행, 히치하이킹! 아직 세상은 따뜻합니다. 모두들 히치하이커가 되어봅시다!

두부연인 tofu lovers / 저자: 131WATT

콩이 두부가 되어 모판에 담기고,
다시 검은 비닐봉지에 담겨 누군가의 집으로 간 두부연인.
뜨거운 불에 구워지고 나서야 서로를 안을 수 있고 안도할 수 있었던 두부연인의 슬픈 사랑 이야기입니다.





컨트롤러 사용설명서 / 저자: 131WATT

누구나 외로움을 이기기 위해 더 외로운 행위를 하고 있을지 모릅니다. 여기 외로운 마법사 리모가 당신께 또 외로움에 대해 제안합니다.



In blanket / 저자: 신모래

담요 바깥으로도 나가기 싫고, 혼자 있는 것도 싫은 한 소녀의 이야기입니다.



Margarine / 저자: 신모래

일러스트레이터 신모래의 아트웍 컬러링북. 작은 책 '클라우드'의 등장인물들이 그려져 있습니다.

Cloudy / 저자: 신모래

보푸라기를 닮은 먹구름 클라우디와 찰스들의 이야기를 담았습니다.

수학자 Mathematician / 저자: 신모래

수학용어를 주제로 한 일러스트집

어느 날 2시의 모임 / 저자: 남그린 글, 신모래 그림

“매주 토요일, 오후 두 시, 네 명의 친구들이 모여 차를 마신다.” 네 명의 묘한 인물들의 대화를 담은 그림책입니다.

2) 사진

PLAY IN THE WORLD 월간지 30호 / 저자: PLAY IN THE WORLD

PLAY IN THE WORLD는 두 명의 디렉터가 매월 직접 찍은 사진을 소개하는 사진집입니다. 주제 없이 '한 달 동안 찍은 사진만 실는' 컨셉으로 쉽게 지나칠 수 있는 우리 주변의 작지만 소중한 일상을 기록합니다. 이번 30호에서는 2014년 10월의 사진을 만날 수 있습니다.

PLAY IN THE WORLD B CUT / 저자: PLAY IN THE WORLD

PLAY IN THE WORLD B CUT은 2012년 5월부터 2014년 4월까지 만든 24권의 PLAY IN THE WORLD 중에서 소개하지 못한 B CUT들을 모은 사진집입니다.

일회용카메라 사진집 / 저자: GreenGreen

2007년 처음 일회용 카메라로 사진을 찍게 되었는데 생각보다 결과가 만족스러웠다. 일회용 카메라는 눈으로 피사체를 확인하고 셔터를 누르면 끝이다. 기능도 다른 조작법도 없다. 결과도 바로 확인할 수 없고 삭제기능도 없다, 그런데 이상하게 너무 편하다. 몸도 마음도 편하다.



TOGOFOTO #01 From behind / 저자: TOGOFOTO

TOGOFOTO프로젝트의 첫 사진집. 따뜻한 필름카메라로 촬영한 지구별 사람들을 한 권의 사진집



TOGOFOTO #03 Open to close / 저자: TOGOFOTO

일상생활 속에서 술하게 만나는 문 그리고 창문을 통한 35mm 필름카메라로 담긴 따뜻한 지구별의 모습



온 더 록스 On the rocks / 저자: 김경태

온 더 록스(ON THE ROCKS)는 사진가 김경태가 2005년부터 2013년까지 수집한 돌을 촬영한 사진집이다. 한 면을 가득 채운 사진은 실제 5cm 이하의 돌을 확대 촬영한 것으로, 42점의 사진들을 통해 결코 육안으로 볼 수 없는 작은 돌의 입자, 굴곡과 색의 분포, 명암을 확인할 수 있다. 동적인 표지, 입자를 확대한 면지, 돌의 초상이 이어지는 내지, 실제 크기를 나타내는 색인의 구성 순서대로 보는 것도 하나의 묘미다.

밝은 그늘 / 저자: 손승현

〈밝은 그늘〉에는 다큐멘터리 사진가 손승현이 2003년도부터 2012년도까지 북미, 캐나다 그리고 몽골에서 찍은 사진 57장이 수록되어 있다. 교차 편집된 총 31장의 컬러 사진들과 36장의 흑백 사진들을 통해 사진가는 몽골의 산업화와 근대화의 문제를 제기한다.

사이에서 / 저자: 강태영

강태영이 여행 다니며 찍은 사진들을 선별하여 묶은 〈사이에서〉는 사진가의 첫 사진책이다. 강태영 사진의 매력은 바로 옆 우리의 일상을 매우 무덤덤한 시선으로 포착하고 있다는 점이다. 궁극엔 홀로일 수밖에 없는 우리의 모습을 다른 이들을 통해 투영시켜 보여 주고 있다는 점에서 〈사이에서〉에 등장하는 그들은 우리의 아바타이다.

사과 여행 / 저자: 신현림

시인이자 사진가인 신현림이 세계 각국을 6년간 돌며 찍은 이 사과 사진들은 평범한 일상을 배경으로 하고 있다. 하지만 일상의 풍경에 자리한 사과는 매우 낯설고 이질적인 풍경을 만들어 낸다. 신현림은 사과를 일상에 배치함으로써 자연과 신에 대한 경외감과 친밀감을 담아내고자 했다.

3) 디자인

OKINAWA / 저자: 한창민, GREENGREEM

저자 한창민은 2007년 3월부터 10월까지 오키나와현 이시가키의 카리바에 머물면서 사진을 찍었고 이후 2008년 5월에 열흘간 같은 곳에 머물면서 박성진과 함께 사진을 찍었다.

AVEC STUDY #01 Constellation / 저자: AVEC

한국에서 찾아 볼 수 있는 별자리 중 가장 밝은 별(알파별)이 포함된 열 네개의 별자리를 수록

했다. 또한, 주변에서 쉽게 찾아 볼 수 있는 재료를 활용하여 재미있는 시각으로 하늘의 별자리를 표현했다.



우주 우표 책 / 유어마인드

1960, 70년대를 중심으로 제작된 각국의 우표 중 우주, 우주선, 행성, 성좌에 관한 것만을 골라 수록한 도감. 400여장의 우표 중 총 70장을 골라 수록하였으며, 두 가지 주제 '정복과 힘의 우주 우표', '관찰과 선망의 우주 우표'로 분류했다. 이 책을 통해 우주를 볼 수도, 우표의 일러스트레이션과 디자인을 볼 수도, 냉전시대 우주 경쟁의 역사를 볼 수도, 기념하거나 그저 동경하는 방식을 볼 수도, 혹은 모든 것이 뒤섞인 우주 우표의 종합을 볼 수도 있다.

서울 랜드마크 점선잇기 / 저자: 담담 프로젝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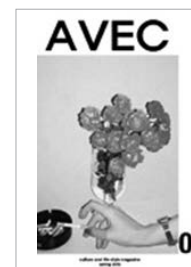
파리엔 낭만의 에펠탑이, 런던엔 멋진 타워 브릿지가 있고, 전 세계 사람들은 가우디의 건축물을 위해 바르셀로나에 방문합니다. 한국에도 멋진 건물들이 있음을 국내외 관광객들에게 알리고자 합니다. 서울의 자연과 역사, 그리고 사람이 어우러진 랜드마크들을 재미있게 소개합니다.

5-1 뉴 슈퍼-에어로시티 / 저자: Arong

난 소심하지 않아요. 생각이 많을 뿐.

그 많은 생각들은 모두 유용하면서도 세심합니다. 버스탑승부터 하차까지의 섬세한 분석. 당신에게 알맞는 좌석선택을 위한 가이드라인을 제시해 줍니다.

4) 잡지



AVEC 01-05 / 저자: AVEC

한 해 두 번 발행하며 매 호마다 한 가지 주제를 갖고 다채로운 이야기를 만드는 잡지다.



Meet People Who

Issue No. 1 : Meet people who run small business in Brussels.

/ 저자 : 조수인

다양한 사람들을 만나 그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는 사람중심의 비정기 간행물 밋피플후. 창간호에서는 벨기에의 수도 브뤼셀에서 살아 가고 있는 소상공인들을 만나보았다. 당신이 브뤼셀을 생각할 때 와플이나 초콜릿만이 아닌 이 7명의 사람들을 떠올릴 수 있게 되기를.



PAPER B / 발행 : PAPER B

매호 하나의 균형 잡힌 국내 비즈니스를 선정해 기업의 브랜드부터 소수가 운영하는 브랜드까지 서로 다른 형태의 브랜드를 비교 분석하는 월간지

MAGAZINE B / 발행 : MAGAZINE B

매거진 B는 전 세계에서 찾은 균형 잡힌 브랜드를 한 호에 하나씩 소개하는 광고 없는 월간지입니다. 브랜드의 숨은 이야기는 물론 감성과 문화까지 담고 있어 브랜드에 관심 있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쉽게 볼 수 있습니다.



그린마인드 Green mind / 발행 : 그린마인드

작은 사람들의 따뜻한 마음을 그린마인드 매거진. 공간과 자연을 사랑하는 eco life 매거진. 당신의 마음과 눈길이 그린마인드에 잠시 머문다면 환경은 아름다운 변화를 시작합니다.

